

WEEKLY REPORT

KMI 북방물류리포트

VOL.161
MAR 5 2021

발간년월 2021년 3월 5일 (통권 제161호)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
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TEL +82-51-797-4776 FAX +82-51-797-4659



주요 동향

- 극동 지역 어업 업체, 새로운 수출 루트 개발
- 러시아 세관절차 자동화가 물류비 상승 초래
- 러 북극 지역 검문소에 검역·통관 기능 추가
- 하바롭스크에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유치 추진

주요 통계

- 2020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
-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
-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

주요 동향



극동 지역 어업업체, 새로운 수출 루트 개발

■ 러시아 정부는 국내 수산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^{a)}

- 지난해 가을 중국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러시아 식품위생관리부에 공식 통보했음
- 그 후 중국은 러시아산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, 러시아 어선을 대상으로 격리 및 검역 조치를 강화했음
- 이 같은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로 그 동안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했던 러시아 극동 지역 어업업체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. 이로 인해 하바롭스크 주의 수산물 수출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월 62.6%에서 올해는 35.3%로 크게 감소했음
-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러시아가 수출되는 총 수산물의 70%를 중국에 공급해왔기 때문임. 최근 러시아 어업청의 발표에 따르면,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수출 물량을 이전 수준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
■ 중국은 수산물 수입에 새로운 규제 적용, 러시아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

- 러시아 정부는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, 그 일환으로 투자와 쿼터를 연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음
- 또한 연해주 소재 업체들은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한 수산물을 냉동 보관하거나 가공하여 러시아 중부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, 올해 가을부터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임
-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중국의 칭다오 지역 항만을 통해 수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
- 그 밖에도 극동 지역 소재 어업업체들은 어획량 일부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. 다만,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, 상품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고, 대규모로 생산 및 가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,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음

■ 지난해 1~11월 러시아 수산물의 전체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7.54% 증가

- 러시아 수산물의 중국 수출 물량이 감소한데도 불구하고, 전체적으로 볼 때 러시아 수산물 수출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
- 러시아는 현재 55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데, 주요 수입국은 중국(53.16%), 한국(32.82%), 유럽연합(7.5%)이며, 유럽연합 회원국 중 네덜란드(5.97%)가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음
- 한편, 러시아 수산물 수출 품목 가운데, 명태가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, 2020년 기준 수출량은 전년 대비 2% 증가했음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(051-797-4765)

참고자료

- a) https://www.korabel.ru/news/comments/dalnevostochnye_kompanii_razvivayut_pererabotku_r_yby_v_otvet_na_ogranichenie_eksporta_v_knr.html (2021.3.3. 검색)
- http://www.rusexporter.ru/news/detail/11781/?sphrase_id=2141759 (2021.3.3. 검색)

러시아 세관 절차 자동화가 물류비 상승 초래

■ 러시아 연방관세청(FCS, Federal Customs Service)이 2021년 2월부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세관 신고 자동화 방식을 도입

- 러시아 연방관세청은 2021년 2월 1일부터 해외 무역 상품에 대해 전자 형태의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센터(EDC, Electronic Declaration Center)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
- 5개 단계에 걸친 알고리즘에 따라, 첫 단계에서는 금, 은, 백금, 팔라듐 및 기타 귀금속 및 전자신고센터에서 허용하지 않은 범주의 물품을 제한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함
- 다음 단계에서 각 물품은 화물 유형 및 운송 방법에 따라 분류되는데, 간접세의 적용을 받는 알코올, 담배, 자동차, 의약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허용 여부가 전자신고센터에 전송되어 결정됨
- 해상운송은 발트해, 노보시비르스크,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으로 분리되며, 모스크바 항공 운송의 경우 별도의 전자신고센터에서 처리됨

■ 세관 자동화 방식이 도입되면서 러시아 북서부 지역에서 물품 거래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 비판 목소리도 고조

- 일부 세관 지점이 특정 유형의 상품군 처리에 집중하면서, 상품의 분배가 불균형해지는 폐단이 발생했음
- 러시아 지역 간 시간대 차이로 인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혼동이 발생하는 점도 지연이 증가하는 요인임
- 세관의 자동화 절차 도입은 오랜 기간 세관 업무에 종사했던 인력의 숙련된 노하우가 발휘될 수 없게 되어, 결과적으로 세관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는 데 한계로 작용함
- 특히 신선식품 공급업체의 경우 물류운송시간의 연장에 따른 상품 부패를 우려하게 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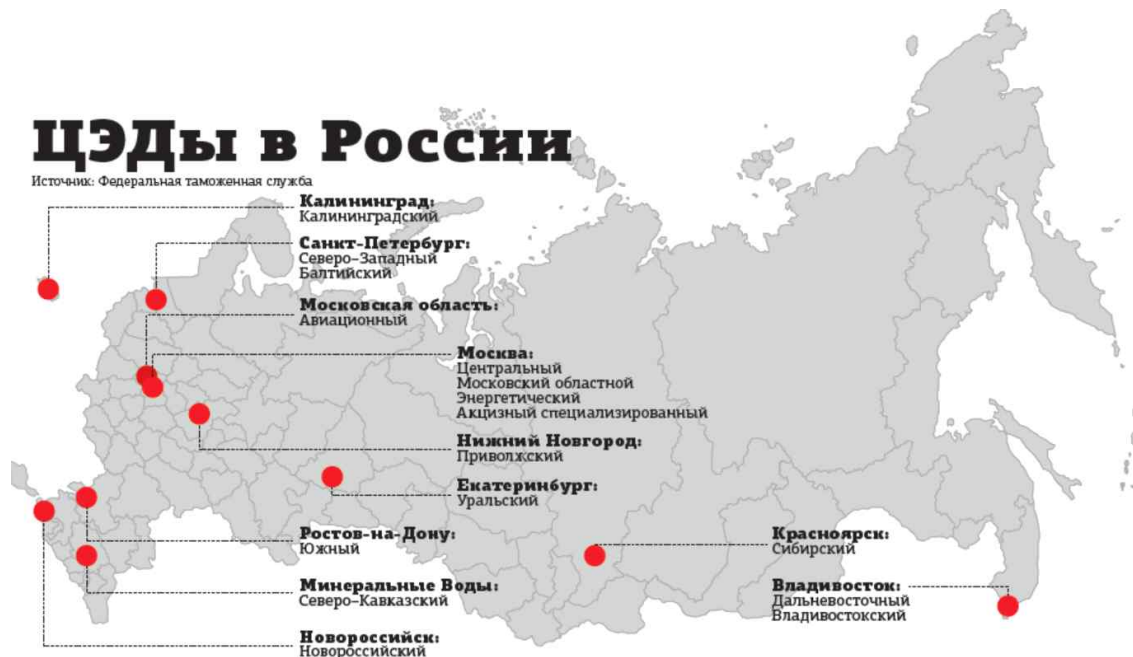
■ 세관 자동화가 특정 도시에서만 이뤄져 해당물품에 대한 세관처리를 위해 비효율적인 물류 운송로가 형성되어 물류비 증가 우려

- 세관 신고 금액은 러시아 각 연방기관의 가격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계산되며, 특정 물품에 대한 스마트 세관 처리가 가능한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물류 운송로가 복

잡해질 수 있음

- 한편, 전문가들은 물류 운송 시간 및 가격이 급등하면 화물 운송로의 전환 또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함
-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물류회사 러스마린(Rusmarin)의 블라디슬라브 피쉬킨(Vladislav Fishkin) 지부장은 EU산 상품 수입업자는 화물 통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스크바 주변 지역에 대표사무소를 열거나, 발트해 및 흑해를 통과하여 화물 통관을 수행했던 수입업자는 비교적 물류 비용이 적게 드는 극동으로 일부 운송로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음

그림. 러시아 전자신고센터 개설 현황



자료: https://m.dp.ru/a/2021/02/17/Dokumenti_kudato_otpravle

김현진 리포터,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
(hyunjink24@gmail.com)

참고자료

a) https://m.dp.ru/a/2021/02/17/Dokumenti_kudato_otpravle (2021.3.1. 검색)

러 북극 지역 검문소에 검역·통관 기능 추가

그림. 러 북극 지역 검문소 현황



자료: <https://promvest.info/ru/vazhno/pravitelstvo-rf-uprostilo-prohojdenie-proverok-v-punktah-propuska-v-arkticheskoy-zone/>
<https://seanews.ru/2021/02/10/ru-pravitelstvo-uprostilo-prohozhdenie-proverok-v-punktah-propuska-v-arkticheskoy-zone/>

■ 북극 지역 검문소를 통해 검역과 통관절차 처리 가능

-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북극 지역에서 통관 및 세관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을 승인했으며, 승인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적용됨
- 이 법령은 2011년 6월 29일 정부령 500호, 2011년 6월 29일 정부령 501호, 2016년 8월 13일 정부령 792호를 개정한 것임
- 이 같은 조치는 그 동안 러시아 복지감독청과 러시아 농업감독청이 수행했던 위생검역, 동물검역, 식물검역 등 통합적인 검역을 검문소에서 바로 수행하도록 한 것임
- 북극 지역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와 비슷한 조치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적용했던 사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임

■ 기업의 물류비는 절감되고, 북극 사업의 편리성 기대

- 러시아는 이 조치를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고, 특수 장비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
- 그 밖에도 러시아 정부는 북극 지역의 경제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
- 2020년 3월 18일 러시아 대통령은 탄화수소 생산 및 가공 사업 대상으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정된 세금법에 서명했으며, 2020년 7월 13일 러시아 북극 지역 기업 활동 지원

관련 연방법과 2차로 개정된 세금법에 서명했음

-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비율은 7.5%, 중소기업의 경우 3.25%로 낮아졌음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(051-797-4765)

참고자료

- a) <http://www.morvesti.ru/news/1679/88132/>(2021.3.2. 검색)
- b) <https://promvest.info/ru/vazhno/pravitelstvo-rf-uprostilo-prohojdenie-proverok-v-punktah-propuska-v-arkticheskoy-zone/>(2021.3.2. 검색)

하바롭스크에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유치 추진

■ 극동투자수출지원청은 하바롭스크에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과 협상

- 협상 대상 기업은 WildBerries, METRO, 얀텍스 마켓, OZON, IKEA 등임
-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OZON은 2위, WildBerries는 3위, 얀텍스 마켓은 6위, IKEA는 13위를 차지하고 있음
- 하바롭스크는 극동 지역의 교통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와도 거리가 근접하다는 지리적 강점을 갖고 있음

■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,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조성

- 2020년 기준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3조 루블 이상으로 전년 대비 34% 증가했으며, 2025년 약 7조 루블 이상으로 전망됨
- 2020년 기준 전체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중 모스크바가 차지하는 비중은 24.7%으로 가장 높음
- 모스크바 주(8.3%), 상트페테르부르크(7.5%), 스베르들롭스카야 주(2.5%), 로스토프 주(2.3%) 등 순으로 모두 러시아 북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www.khabkrai.ru/events/news/182545>(2021.3.3. 검색)
- b) <http://www.finmarket.ru/news/5343198>(2021.3.3. 검색)
- c) <https://br-analytics.ru/blog/top-30-online-retailers-2020/>(2021.3.3. 검색)



주요 통계



표. 2020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

(단위: 백만 톤, %)

| 수역* | 건화물 | 액체화물 | 합계 | 2019/2020 증가율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극동지역 | 12.34 (+8,5%) | 6.38 (-2,3%) | 18.72 | +4,6% |
| 북극해 | 2.46(-4,9%) | 5.76 (-9,9 %) | 8.22 | -8,4% |
| 발트해 | 10.93 (+2,4%) | 10.33 (-12,0%) | 21.26 | -5,8% |
| 아조프-흑해 | 9.61 (+16,1%) | 11.63 (-13,4%) | 21.24 | -2,4% |
| 카스피해 | 0.23 (+21,2%) | 0.4(+2,5%) | 0.63 | +9,5% |
| 합계 | 35.57 (+7,6%) | 34.5(-10,4%) | 70.07 | -2.3% |

* 주: 극동해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울가, 포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베츠키야가반, 데-카스트리스, 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얀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란데이, 페벡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시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다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라, 마하치칼라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(051-797-4776)

참고자료

a) <https://portnews.ru/news/306082/>(2021.2.25. 검색)

b) <https://portnews.ru/news/304515/>(2021.2.25. 검색)

표.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
(단위: 천 달러)

| 품목 | 해외* | | CIS** | | 합계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수출 | 수입 | 수출 | 수입 | 수출 | 수입 |
| 식료품 및 원자재 | 392,385.8 | 63,662.4 | 3,476.1 | 1,172.1 | 395,861.9 | 64,834.5 |
| 광물 제품 | 1,024,552.3 | 35,285.6 | 29,442.0 | 37,716.1 | 1,053,994.2 | 73,001.7 |
| 연료 및 에너지 제품 | 830,332.8 | 34,745.2 | 679.2 | 0 | 831,012.1 | 34,746.3 |
| 생고무 및 화학 제품 | 4,299.1 | 64,780.6 | 601.4 | 516.5 | 4,900.5 | 65,297.1 |
| 가죽원료. 모피 제품 | 1.3 | 1,799.6 | 1.0 | 3.5 | 2.3 | 1,803.0 |
| 목재 및 펄프. 종이 제품 | 80,912.2 | 8,759.6 | 491.2 | 164.8 | 81,403.3 | 8,924.4 |
| 섬유. 섬유 제품 및 신발 | 206.1 | 29,685.9 | 10.2 | 226.6 | 216.3 | 29,912.5 |
| 금속 및 금속 제품 | 42,978.9 | 65,365.4 | 302.4 | 4,358.4 | 43,281.4 | 69,723.8 |
| 기계류 | 124,701.3 | 521,670.0 | 462.3 | 1,548.2 | 125,163.7 | 523,218.2 |
| 기타 | 664,321.9 | 37,508.1 | 18,703.4 | 612.9 | 683,025.3 | 38,121.0 |
| 합계 | 3,164,691.8 | 863,262.5 | 54,169.2 | 46,320.2 | 3,218,861.0 | 909,582.6 |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(051-797-4776)

참고자료

a) <http://dytu.customs.gov.ru/folder/230467>(2021.2.25. 검색)

표. 2020년 12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(단위: 천 톤, 달러)

| 품목 | 해외* | | | | CIS** | | | | 합계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| 수출 | | 수입 | | 수출 | | 수입 | | 수출 | | 수입 | |
| | 톤 | 천,달러 | 톤 | 천,달러 | 톤 | 천,달러 | 톤 | 천,달러 | 톤 | 천,달러 | 톤 | 천,달러 |
| 선어,냉장어 | 2 | 6.8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1.9 | 6.8 | — | — |
| 냉동어 | 212,985 | 281,620.3 | 357 | 1,782.2 | 654 | 529.5 | — | — | 213,638.1 | 282,149.8 | 597 | 1,938.0 |
| 연어류 | 25,795 | 86,331.1 | — | — | 0 | 0.0 | — | — | 25,795.2 | 86,331.1 | — | — |
| 넙치 | 521 | 2,713.8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521.2 | 2,713.8 | — | — |
| 가자미 | 127 | 108.5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127.0 | 108.5 | — | — |
| 가자미류 | 2,052 | 1,448.3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2,051.7 | 1,448.3 | — | — |
| 청어 | 70,866 | 39,844.9 | — | — | 117 | 64.6 | — | — | 70,983.3 | 39,909.5 | — | — |
| 대구 | 11,268 | 29,599.6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11,268.2 | 29,599.6 | — | — |
| 명태 | 66,223 | 71,432.1 | — | — | 533 | 460.9 | — | — | 66,756.8 | 71,893.0 | — | — |
| 농어 | 30 | 83.4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30.2 | 83.4 | — | — |
| 간, 곤이 (어란) | 1,280 | 195,814.6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1,280.1 | 30,731.5 | — | — |
| 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등 생선부산물 | 1,047 | 1,623.8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1,046.6 | 1,623.8 | — | — |
| 생선 필렛, 어육 | 3,965 | 11,140.3 | 250 | 986.0 | 26 | 66.7 | — | — | 3,991.3 | 11,207.0 | 250 | 986.0 |
| 건어, 훈제, 염장, 어분 | 118 | 211.1 | 178 | 989.3 | 0 | 0.0 | — | — | 118.1 | 211.1 | 178 | 989.3 |
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|------|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
| 갑각류 | 13,192 | 316,53 3.4 | 106 | 608.3 | — | 0.0 | — | — | 13,19 1.4 | 316,5 33.4 | 106 | 608.3 |
| 계류 | 11,632 | 303,06 8.7 | — | — | — | 0.0 | — | — | 11,63 2.5 | 303,0 68.7 | — | — |
| 조개류 | 9,709 | 29,454. 2 | — | — | 62 | 69.5 | — | — | 9,770. 9 | 29,52 3.7 | — | — |
| 가리비 | 541 | 1,528.0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541.1 | 1,528. 0 | — | — |
| 오징어류, 문어류 | 8,283 | 21,942. 6 | 142 | 551.2 | 62 | 69.5 | — | — | 8,344. 0 | 22,01 2.1 | 142 | 551.2 |
| 수산 무척추 동물 | 2,687 | 7,086.3 | — | — | 0 | 36.6 | — | — | 2,687. 0 | 7,122. 9 | — | — |
| 해삼류 | 697 | 999.2 | — | — | 0 | 36.6 | — | — | 697.5 | 1,035. 8 | — | — |
| 성게류 | 1,872 | 6,026.6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1,872. 4 | 6,026. 6 | — | — |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(051-797-4776)

참고자료

a) <http://dvtu.customs.gov.ru/folder/230467>(2021.2.10. 검색)